

# 금강경, 좀더 쉽게...저자별 <금강경오가해설의>

금강경오가해설의 여섯 권  
원순 역해 | 법공양 펴냄



“산은 산이요, 불은 불이로다.” 1981년 해인사 성철 스님께서 조계종 종정으로 취임하면서 내린 법어다. 법어는 종교를 떠나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이 된 문장이 되었다. 하지만 그 문장이 조계종 전통강원에서 수백 년 동안 배우고 있는 <금강경오가해설의(金剛經五家解說誦)>에도 나와 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책은 1417년 조선시대 무학대사의 상수제자 함허득통 스님의 <금강경오가해설의>를 책 속의 저자별로 나누어 펴낸 것이다.

<금강경오가해설의>는 ‘금강경 뜻풀이 책’ 가운데 역사적으로 검증된 중국 스님 규봉종필·육조혜능·부대사·아부도천·예장종경의 해설을 묶어놓은 <금강경오가해>를 풀이하면서 함허 스님 자신의 견해를 덧붙인 것이다. <금강경오해>는 개성이 다른 다섯 분의 주석을 누가 언제 무슨 의도로 골라 편집했는지는 알 수 없다. 책은 함허 스님을 추가해 여섯 분의 ‘금강경 뜻풀이’다.

<금강경>은 ‘금강반아바라밀경’의 줄임 이름으로, 대승불교의 교리 및 기본 사상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경전이다. 4처(處) 16회(會)에 걸쳐 설한 반아부 600권 중 제2처(사위국 기원정사) 제9회 제547

권에 해당한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서 수보리 등을 위하여 처음에 객관적 경계가 공(空)함을 설하고, 해(慧)도 또한 공함을 보이며, 보살의 6바라밀도 모두 공함을 밝히고 있다. 반복이 많고 간결한 문장은 집중적이면서 오묘한 뜻을 담고 있는데, 보는 견해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는 이의 근기에 맞추어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 경전이 중국에서 번역된 뒤로 나름대로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선종과 교종에서 출가자와 재가자의 구분을 떠나 수많은 선지식들이 뜻풀



익산왕굴리 5층석탑에서 발견된 순금금강경판

이를 했고, 그 결과 오늘날 수많은 ‘금강경 뜻풀이 책’들이 전해진다. 육조혜능 스님 당시만 해도 800여종이 넘었다고 한다. 그 뒤로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끊임없이 금강경 뜻풀이 책들이 나오고 있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역자는 2009년 <조계종 표준 금강경>이라는 이름으로 발간된 책을 보고, 표준이 되는 <금강경>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쉽게 그 뜻을 이해하며 읽을 수 있는 ‘우리말

금강경’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2010년 5월 <우리말금강반아바라밀경>을 엮어냈는데, 이것 역시 넓은 의미에서 ‘금강경 뜻풀이 책’이라고 하겠다.

책은 규봉의 ‘찬요(纂要)’, 육조의 ‘해의(解義)’, 부대사의 ‘찬(讚)’, 아부의 ‘송(頌)’, 종경의 ‘제강(提綱)’ 순으로 되어 있고, 함허득통 스님은 금강경의 원문과 아부의 송, 종경의 제강에 주로 설의를 붙였다. 함허득통 스님의 설의는 다섯 분의 뜻풀이를 충실하게 따라가며 더 자세한 해설을 덧붙여 전체 뜻을 드러내려 했다.

여섯 분의 해설서인 <금강경오가해설의>가 대대로 내려오며 많은 이들에게 ‘금강경 지침서’가 되었

규봉·육조·부대사·아부·종경·함허

독자 이해 돕기 위해 저자별 해설

원뜻 제대로 이해하는 게 관건

는데 굳이 이 책을 여섯 선사 각각의 해설서로 나누어 펴낸 것은 <금강경오가해설의>의 독특한 구성이 경을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게 할 수도 있겠다는 역자의 생각에서다.

책의 구성을 살펴보면 먼저 <금강경> 원문이 나오고 규봉, 육조, 부대사, 아부, 종경의 글들이 이어지며, 이 내용들에 함허 스님의 설의가 곁들여져 있다.

규봉의 찬요는 <금강경>의 중요한 뜻을 풀어놓은 것이고, 육조의 해의는 <금강경>의 이치를 풀어놓은 것이고, 부대사 찬은 <금강경>의 뜻을 찬탄한 것이고, 아부의 송은 <금강경>의 뜻을 간결하게 계승으로 풀어 놓은 것이고, 종경의 제강은 계승으로 <금

강>의 골격을 잡아가며 골수를 잡아낸 것이고, 함허의 설의는 <금강경오가해>를 이해할 수 있는 올바른 이치를 설해 놓은 것이다.

이번 책은 저자별로 나누어 펴냈는데, 역자는 ‘함허 스님의 <금강경오가해설의>는 찬요, 해의, 찬, 송, 제강, 설의 등이 글들의 관점이 갖고 있는 힘과 성격이 확연히 달라 마치 ‘금강경’의 한 장면을 여섯 분이 저마다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 여섯 장르의 특색 있는 문학작품으로 표현해낸 듯하다. 여러 사람의 글이 자신의 고유한 색깔을 지니고 한 곳에 모여 있어 처음 경을 보는 사람들은 여러 선사들의 의도와 뜻을 헤아려보기에도 벅차서 원문에서 말하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 그 근본을 놓치고 결과지에 집착하여 붙들고 있는 격이 되기 쉽다. 게다가 원문에 대한 선사들의 해석이 서로 다른 부분들도 많아 자칫 그 뜻을 이해하기 힘든 독자는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또한 함허 스님의 <금강경오가해설의>는 한 원문에 여섯 선사의 글을 배치하다 보니 어느 분의 글은 그 원문과 바로 맞추어 볼 수 없는 곳에 놓일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 여섯 분의 금강경뜻풀이를 저마다 각각의 ‘금강경 해설서’로 독립시켜 책으로 내는 것이 금강경을 공부하는 독자를 위해 하나의 고유한 색깔을 지닌 읽기 편한 금강경 해설서가 될 것이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

박재원 기자

### ▲함허득통(涵虛得通 · 1376~1433)은

1396년 21세 때 관악산 의상암으로 출가했다. 무학대사의 법을 이었으며, 1414년 황해도 자모산 연봉사에 거처를 마련하고 <금강경오가해>를 강의하면서 풀이했는데, 이것이 훗날 ‘설의’라 하여 <금강경오가해>에 합쳐져 <금강경오가해설의>가 되었다. 1431년 화양산에 들어가 불암사를 중수하고 그곳에서 원적에 들었다. <원적경소>, <현정론>, <반야참문>, <금강경요관> <선종명가집설의> 등의 저서가 있다.

## ‘탄허’ 100년, 생애와 오대산 이야기

탄허, 허공을 삼키다

저헌 스님 저음 | 민족사 펴냄 | 1만3천5백원



“오대산 상원사의 한암 스님을 알게 된 탄허 스님은 거스를 수 없는 또 다른 열정이 샘솟는다. 때문에 1932년 한암 스님에게 편지를 보내기에 이른다. 20세 약관의 전라도 유생과 당시 57세 조선불교 선교양종의 종정(교

정)으로 있던 노회한 대가의 만남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2013년은 20세기 한국 역사와 맥을 같이 하는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선지식, 대석학 탄허 스님의 탄신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북극성과 같이 우리민족의 시대정신 중 한 분이었던 탄허 스님의 생애와 그 생애의 많은 부분을 지나간 오대산 이야기다.

“3년간 편지를 주고받았던 한암 스님은 진리에 대한 깊은 갈증 속에서 더 이상 스승이 없었던 탄허 스님에게 구원의 빛이었다. 1934년 11월 21일, 탄허 스님은 스승인 한암 스님을 은사이자 계사



회경정 완관을 기념하여 열린 회경산림법회

로 사미계를 받는다. 이때 받은 범명이 택성(宅成)이며, 탄허는 후일의 법호다.”

<탄허, 허공을 삼키다>는 스님의 원력과 가르침, 업적을 되살려 ‘탄허학’을 정립하여, 미래의 꿈과 좌표로서 한국불교 발전의 바탕으로 삼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발간되었다.

“탄허 스님의 열반은 소박한 답답함으로 마쳐진다. 스님은 71세 때인 1983년 6월 5일 당신께서 직접 티를 잡고, <산화엄경합론> 번역에 매진하셨던 오대산 월정사의 방산굴에서 출가하신 지 49년 만에 조용히 열반에 드신다. 전통의 향기를 간직한 마지막 명안종사(明眼宗師)는 그렇게 천화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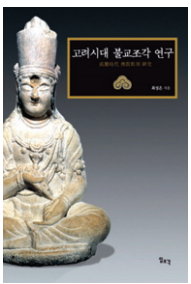
탄허 스님은 오대산에 입산하여 수행하고, 시대의 선지식이었던 한암 스님의 가르침과 사상을 전수받았다. 그리고 오대산에서 수도원을 열어 후학을 양성하는 등 스님의 활동은 오대산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다. 탄허 스님을 말하면서 오대산을 지나칠 수 없다. 오대산은 스님을 품었으며, 스님은 스승이신 한암 스님처럼 오대산인으로 거듭나는 인생을 걷게 된다. 책의 중간까지는 스님의 생애와 시대정신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고, 중간 이후부터는 오대산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고 있어 탄허 스님이라는 큰 그릇을 품을 수 있는 오대산의 문화적인 배경과 그 깊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박재원 기자

## 고려 불교조각의 변화와 흐름을 본다

고려시대 불교조각 연구

최성은 저음 | 일조각 펴냄 | 4만원



고려시대의 불교조각 연구에 매진해온 저자가 30여 년 동안의 연구한 성과를 집약한 책으로, 다양한 도상과 양식적 특징은 물론 당시의 정치, 사회적 배경과 고려인들의 신앙 형태 및 주변국들의 영향에 이르기까지 입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고려시대 불교조각의 변화와 흐름을 볼 수 있다.

고려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불교가 융성했던 만큼 불교문화도 크게 발달했다. 이에 따라 전국에 산재한 수많은 사찰의 불전에는 다양한 크기의 불상들이 예배존상으로서 불전을 장엄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불교에 대한 신앙이 국가적으로 열렸고 불상이 많이 제작되었던 고려시대의 불교조각은 이전 시기인 통일신라의 것이나 이후의 조선시대의 것과는 달리 초기에 지역적, 양식적 다양성

을 태생적으로 안고 전개되었다.

책은 고려시대 불상 모두를 다루지는 못했지만 우리나라 역사상 불교가 가장 대중적인 호응을 얻었던 고려시대의 불교조각을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여 자료를 통한 접근이 가능한 몇 개의 주제에 대해 살펴봤다.

저자는 고려시대의 불교조각을 종래의 시기구분법을 따라 무신의 난이 시작되는 1170년을 기준으로 하여 전·후기로 나누었다.

전기에는 다양한 양식적 특징으로 분화되었던 각 지역의 불교조각이 ‘고려’라는 새로운 통일왕조 안에서 서로 융합되고 발전되어 갔으며 사찰의 창건과 중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조성된 웅대한 불상들에는 통일 고려의 국가적 기상이 한껏 발현되었다.

태조 왕건은 즉위 직후인 태조 2년(919)에 수도 개경에 법왕사, 왕륜사 등 10여 개의 사찰을 세웠고, 936년에는 개경에 광흥사, 내천왕사, 현성사, 미륵사 등을 건립했으며, 936년 후백제의 항복을 받고 통일 대업을 완성했던 황산벌, 즉 오늘날의 충남 연산에 전승을 기원한 개태사를 세웠다. 그러나 개경 일대 사찰에 봉안되었던 예배존상들이 오늘날 전하고

있지 않아 그 실체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개태사의 석조삼존불입상이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음은 불교미술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불행 중 다행인 일이다.

문화적으로 ‘고려’의 특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현종대 11세기 불교조각은 단아하고 귀족적인 요소가 나타나고 있어 성격적인 차이를 보인다.

고려후기에 이르러 장기간 몽골과의 전란을 겪으며 정토를 염원하는 신앙이 유행하게 되고, 그 뒤 원의 간섭이 시작되는 시기에는 지배층들이 불교단과 유착되어 기복적으로 기울면서 결사운동은 힘을 잃고 정토왕생을 구하려는 신앙 경향이 더욱 성행하여 아마타불상이 전국적으로 조성되었다.

고려시대 초기 불교조각은 광주철불, 관촉사 미륵보살입상 등 여러 작품들이 전하고 있지만, 명문자료나 조각가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다. 전반적으로 고려시대 불교조각은 학술적 연구의 근거가 될 유물과 자료의 부족으로 주변 자료와의 비교 연구와 추론에 많은 것을 의존해야하는 만큼 연구에 어려움이 크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 있다. 저자는 이러한 한계를 성실한 연구로써 극복해 내고 있다. 이로써 고려의 사회와 문화의 변화와 흐름을 추적하고 고려인들의 생활상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재원 기자

##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만현, 만현	한지공헌지사
2	삶이 값진 것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월호	마음의숲
3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4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생앤파크스
5	지혜로운 삶(우학스님 신심명 강설)	우학	좋은인연
6	뉘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중	웅화
7	그대 보지 못했는가(서암 큰스님 회고록)	서암	정토출판
8	행복 119	성담	셀프컬처서치
9	나이가 강독	각목, 대림	초기불전연구원
1	십지경(오리지널회경정산스크리트대장경)	전재성	한국배달의민족협회

※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www.unjusa.com

운주사 (02)3672-7181

화제의 신간

# 힐링이 필요한 현대인들에게 던지는 사자후!

# 그대, 보지 못했는가

**법륜 스님의 인생의 전환기를 마련해 준 정신적 스승, 전 조계종 종정 서암 큰스님의 수행과 깨달음 이야기**

여보게,  
어떤 한 사람이 눈두렁 아래 앉아서  
그 마음을 청정히 하면  
그 사람이 바로 중이요, 그곳이 바로 절이지.  
그리고 그것이 불교라네.

서암 스님 저음 | 이형 위음  
444쪽 | 16,000원

정토출판 전화 02-587-8991 전승 02-6442-8993 이메일 book@jungto.org